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1. 2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터키, 시리아 북동부에서 ISIS 고위급 지도자 체포
 - 11.22 「쉴레이만 소일루」 터키 내무장관은 과거 독일과 러시아에서 20여건의 테러를 주도한 ISIS 고위급 지도자 「유수프 후바」를 시리아 북동부에서 체포하였다고 언급
- 獨, 자국 출신 ISIS 포로 송환
 - 11.24 현지언론은 독일 당국이 11.14 터키에 붙잡혀 있던 자국 출신 ISIS 가담 혐의자(9명)를 자국으로 송환한데 이어, 11.22 시리아에 붙잡혀 있던 자국출신 ISIS 조직원(여성)과 자녀(3명)를 본국으로 데려와서 테러조직 가담 혐의를 조사중이라고 보도
- 유로폴, ISIS 온라인 선전활동 대규모 단속
 - 11.26 AP통신은 유로폴이 지난 21~24일 구글·트위터 등 인터넷 업체와 공조하여 ISIS의 온라인 선전활동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, 소셜미디어 계정과 영상 등 2만6천건을 확인·차단했다고 보도

미주

- 美 FBI, ISIS 조직원 접촉기도 방글라데시계 시민권자 체포
 - 11.26 FBI는 자신을 퇴교시킨 대학학장 등에 대한 폭탄테러를 의뢰하기 위하여 ISIS 조직원과 접촉을 시도한 방글라데시계 시민권자 「살만 라시드」를 체포했다고 발표

중 동

○ 이란, 반정부 시위 배후세력 검거

- 11.23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반정부 시위를 배후에서 선동한 혐의로 100여명을 검거하였으며, 이 가운데 미국이 지원하는 테러조직인 「무자헤딘 에할크(MEK)」와 연루된 인물들이 있다고 발표

○ 美軍, 시리아 북동부 ISIS 잔당 격퇴전 재개

- 11.25 NYT는 지난 22일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과 쿠르드족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여 수명의 ISIS대원을 사살하고 10여명을 포로로 붙잡았는데, 미군 지휘관들이 국방정보국(DIA) 보고서*를 접한 후 작전 재개를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

* 미군과 쿠르드족의 활동 감소로 ISIS가 시리아에서 재결집하고 국경을 초월한 공격 능력을 키울 가능성이 큼

아 · 태평양

○ 인도, 테러모의 ISIS 추종자 검거

- 11.25 인도 경찰 당국은 델리市와 아삼州에서 ‘외로운 늑대형’ 테러를 모의한 「무카디르」 등 ISIS 추종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

* 경찰은 이들이 ‘ISIS 방글라데시 지부’ 등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극단화된 것으로 확인

○ 필리핀, 아부사야프그룹(ASG) 피랍 영국인 부부 구조

- 11.25 軍 당국은 술루州에 있는 ASG 은신처를 급습, 지난 7.4 삼보앙가州 해변 리조트에서 납치된 영국인 부부를 구조했다고 발표

○ 방글라데시, 2016년 외교가 식당 테러범 사형 선고

- 11.27 특별반테러재판소는 '16.7.1 발생한 외국인 테러사건(사망 22)의 주동자인 ‘자마툴 무자헤딘 방글라데시(JMB)’ 조직원 7명에게 사형을 선고

아 프 리 카

○ 말리, 프랑스軍 헬기 추락사고 발생

- 11.26 프랑스 정부는 말리 북부의 테러 격퇴戰에 참전한 부대원들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추락, 특수부대원 1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

* 프랑스軍 헬기 2대가 전투병력 증파 중 공중충돌로 추락

이집트 시나이반도 이슬람 사원 폭탄·총격 테러

- '17.11.24 이집트 시나이반도 이슬람 사원에서 무차별 총격 및 폭탄 테러가 발생, 어린이 27명을 포함하여 309명 사망·128명 부상
 - 공격을 받은 사원은 ISIS 및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받는 수피(Sufism) 신자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
 - 30여명의 테러범들이 4대의 차량으로 금요일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사원을 급습, 무방비 상태의 예배자들을 대상으로 폭탄을 터뜨리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후 도주
- 테러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, ISIS 시나이지부가 '16년말부터 공개적으로 수피파 공격을 선동해 왔고 테러범 일부가 ISIS 깃발을 들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同 단체 소행으로 추정

< 수피즘(Sufism) >

- (개요) 이슬람의 한 분파로 코란이나 교리보다는 기도·명상·춤·음악 등을 중시하고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종파
 - ※ 주류 이슬람에서는 수피즘을 이단으로 간주
- (어원) 어원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으나 초기 수피파 신도들이 금욕과 청빈을 상징하는 '양털로 짠 옷'을 입고 다녔다 하여 아랍어로 양모(羊毛)를 뜻하는 'Suf(수프)'에서 유래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
- (특징) 코란·교리를 중시하는 율법주의 또는 성전·테러를 자행하는 원리주의가 아닌 자기 부정과 신비주의를 통한 '신과 자아의 영적 합치'를 추구하는 '온건한 이슬람'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9·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장려됨
- (기타) 현재 이집트에만 76개 수피즘 종단이 존재하고 무슬림 8,000만명中 1,500만명이 수피 무슬림인 것으로 추산